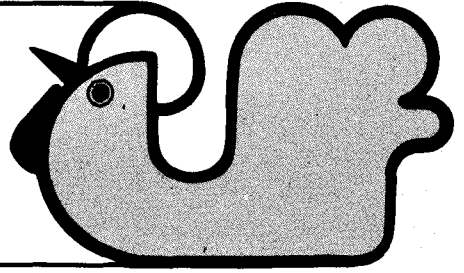


소식

대한양계협회



양계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 방안 심포지움 개최

- 한국가금학회와 공동으로 10월28일,상공회의소 강당에서 -

본회는 한국가금학회(회장 오세정)와 공동으로 양계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심포지움을 오는 10월28일 9시(수)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한국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중점 논의가 될 이번 심포지움은 회장인사와 주제발표, 양계산물 수입개방 현황과 전망(경제기획원), 사료수급 정책개선과 생산비절감(백인기교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의한 원가절감(김영환소장), 외국의 양계산

물수입 대응전략(노영한국장)의 순으로 진행된다.

본 심포지움은 외국의 수입개방압력의 파고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정책의 개선, 외국의 수입개방 대응전략연구를 통한 사례연구, 생산비절감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유도키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본 심포지움은 유료로 개최될 예정이며 관심있는 양축가·관련업계 인사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위생란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 한국냉장축에 상표등록 취하요구 -

본회는 한국냉장(주)의 "위생란" 및 "위생계란"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 지난 9월9일 특허청 농림수산부를 관계요로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이번 한국냉장축의 위생란 특허출원문제는 국내 생산계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앞으로 G·P 시설 등이 확대되어 위생처리된 식란의 유통이 많아질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또한 상대적으로 타계란이 비위생적이라는 결론을 유출할 수 있게되어 계란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 본회에서는 한국냉장축에 우리나라 양계산업발전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계란 구입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위의 상표출원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농림수산부 중소기업과도 지난 9월17일 중소기업과 회의실에서 위생란 표기 상표에 대한 적정부와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다.

이날 참석자는 강희구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구분영 전국계우회연합회장, 한국냉장(주)대표, 본회 노영한 편집국장 등이다.

추석절 닭고기 특별염가 공급

- 통닭·가공닭고기 등 선물용으로 -

본회는 추석절을 앞두고 중부지역 일원에 공한 1천마를 발송, 닭고기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통닭·가공품 등 선물용으로 포장해 9월30일~10월6일 동안 시중가격의 20~50%로 단체공급하는 이번 특별염가공급은 서울근교 도계장축과 협의에 의해 공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충청지역 관공서, 기업, 단체급식소, 축산관련업체에 상품규격, 공급단가, 신청서, 공급방법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최근 육계생산능가는 생산과잉으로 큰 어려움에 처

해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부동으로 소비가 더욱 악화돼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생산자를 돕기 위해 중간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도계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브로일러가격하락 장기화에 따른 해결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염가공급에 관련업계의 많은 참가는 물론 양계업계의 어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육계값 하락대책 긴급좌담회 개최

- 육계불황타개 생산자 의지에 달려 -



△ 육계불황 현황과 타개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월17일 본회 회의실에서 최근 육계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육계가격 하락대책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제1차 지역순회 육계좌담회를 마친 육계전문위원들이 모여 지난 9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육계취약지역인 전북 함열, 충남 서산·당진 등을 순회하면서 직접 보고 느꼈던 입추현황 및 생산자들의 반응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육계불황 현황과 타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육계전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8월초부터 육계가격이 떨어져 생산가 이하인 600원대에 거래됐으나 그 후 9월17일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40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육계불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년도 육계사육시설이 전년대비 30% 증가했으나 이와 반대로 소비에 있어서는 계속된 장마와 노사분규 등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물량이 과잉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문위원들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추석전에는 생

체kg당 4백원, 추석이후에는 3백원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육계생산농가들이 입추를 자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육계생산농가들은 정보에 어둡고 통계수치가 아닌 감으로 육계업을 하고있어 부화업자와 중간상인의 근거없는 종용으로 입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육계농가들이 현상태에서 40% 이상 입추를 감소치 않으면 육계불황은 앞으로 1년이상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무허가부화장과 미등록종계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병아리숫자를 파악할 수 없고 아울러 경기전망 및 생산조절의 어려움을 지적, 이들을 제재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육계불황 타개책은 생산자들의 의지에 달려다고 주장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주인의식을 갖고 생산자들도 이제는 생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유통분야에도 참여하는 차원에서 육계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불황종식 위한 부화인도 공동노력 -



△조기 육계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

지난 9월28일(월)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9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개최되었다. 이날 지역별 정보교환에서 육계시세는 서울 충청지역이 하이 600원, 세미 450원으로 일시적으로 오름세였고 남부 지방은 550원으로 큰 가격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병아리시세는 전국적으로 100원이하에서 거래되고 덩핑병아리가 상당한 수가 나돌고 있어 병아리 입추열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병아리

생산 수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가격안정과 생산조절을 기하여 육계불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육계단지의 생산자 좌담회 결과보고가 있었다.

대부분지역이 생산자의 조직이 미비하여 자기의 권익을 제대로 찾지못하고 방황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전국의 육계생산자들에게 지방곳곳에 생산자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육계가격이 약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추석을 대비한 물량축하현상으로 추석이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니 추석 2~3일 전에 출하를 마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화업체의 한협축산 박준영 사장이 참석하여 육계업체와 부화업체가 공동노력하여 불황을 타개키 위한 좋은 의견도 교환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강원, 충북, 경북, 전남지역의 생산자가 참석하여 전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참석을 촉구기로 했다. 다음달 회의는 10월 27일(화)에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기로 했다.

미국 양계산업시찰단 출국

-본회 황인옥전무 등 미농무성 초청-



△ 황인옥 전무



△ 이인형 과장



△ 이경원 박사

미국대두협회가 후원한 양계업체중진으로 구성된 미국양계산업시찰단이 지난 9월 23일 출국했다.

본회 황인옥전무와 이인형과장(농림수산부 중소과 촉과), 이계조희장(천호), 김영환소장(한국양계 연구소), 이경원박사(ASA), 김진의전무(제일사료)로 구성된 이번 양계산업시찰단은 9월 24일부터 14일간 미국 5개주를 돌며 미국 가금산업현황과 유통, 홍보산업 등에 대한 시찰을 하고 10월 8일 귀국한다.

일정에는 미국농무성, 브로일러협회, 계란협회, KF C본사, 미대두협회, 관련대학 방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찰단의 인내는 미국대두협회에서 하며 업계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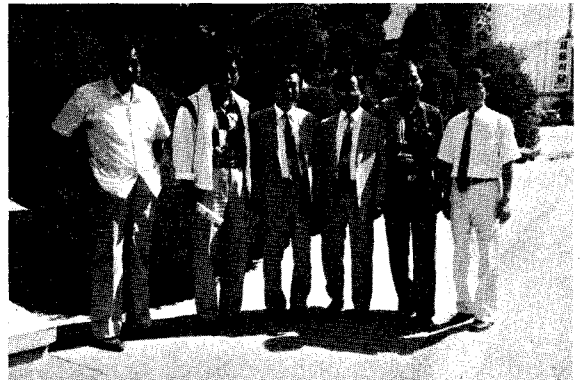
-기관·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본회에서는 닭고기 소비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정부기관·각 언론기관 및 각 대학 등 대단위 사업장 1,000여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했다.

이 협조문 내용은 최근 육계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육계농가를 돕자는 차원에서 각 가정마다 식탁에 닭 1마리씩만 더 올려줄 것과 구내식당에서 값싸고 영양가 많은 닭고기를 주 1회이상 메뉴에 더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육계생산자좌담회 성황리에 마쳐

-전문위원구성, 병아리입식 지제촉구-



△육계생산단지에 출장 좌담회를 가졌다.

본회는 최근 육계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육계분과위원회를 주축으로한 육계전문위원을 구성, 취약지역 육계생산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지역순회 육계생산자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육계불황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지역순회 좌담회는 제 1차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3일간) 육계생산 취약지역인 전북의 합열지구, 충남의 서산, 당진지구를 그리고 제 2차로 9월 21, 22, 24, 25일(4일간) 대전시, 천안시, 광주시를 비롯 포천지역에서 육계분과전문위원(장민기, 권태웅, 조정래, 이종길, 김풍림)과 각지역 육계생산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육계생산조절과 가격안정을 모색키 위해 실시되었다.



△ 생산자들 열기가 가득찬 좌담회 광경

각 지역별 좌담회에서 육계전문위원들은 최근 육계 사육동향, 종계입식현황, 사료생산량, 병아리생산잠재능력, 육계체화량 및 향후전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설명하는 한편 생산자들이 육계불황을 피부로 느끼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특히 이번 지역순회 좌담회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육계가격의 조기회복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어떠한 조치나 각 부화장에서 병아리생산을 감축해 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우선 생산자 스스로가 입을를 자제하고 감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지역 생산자들의 공감대와 호응도가 높았으며, 또한 육계불황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리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본회에서는 지역별순회 좌담회를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본회(752-3571~2)로 연락 바란다.

축산단체장 조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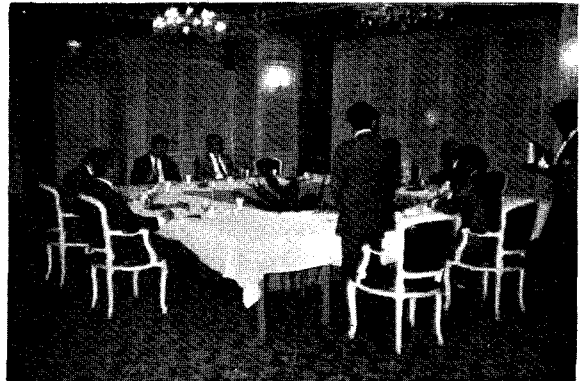
- 9월16일, 생산자단체장 참석 -

본회주관의 축산단체장 조찬회가 지난 9월16일 오전 7시30분 삼정호텔 샤론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본회가 주관하였고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종축개량협회의 각 단체장과 전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축산회관 이전문제에 대해 송찬원 종축개량협회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계도하여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차원으로 개념을 바꾸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키로 하고 ▲정부기구확대

(축산청) ▲축산물생산원자재 조세감면(관세, 부가세 등) ▲산지개발(초지조성) 편의제공 ▲축산물가격안정법 및 자조금제도실시 등 생산자 단체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 각 생산자 단체의 공동관심사가 논의됐다.

또한 사료문제에 있어서 제반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5개 단체장이 건의키로 합의했다.

제 4 차 검정위원회 개최

- 9월8일 오후 본회에서 -



△ 제 4 차 검정위원회

지난 9월 8일(화) 오후 4시 본회회의실에서 '87 제 4 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0회, 제21회 산란계 검정중간 성적검토와 '87. 8. 6부로 검정이 완료된 '87제 2차(연 20회) 육용계에 대한 최종성적검토 및 기호표를 개봉성적을 분석하였다. 일부검정규정개정을 위한 협의도가졌다.

미국 채란양계 및 소비촉진활동 시찰

- 11월초 출국, 미사료곡물협회후원 -

국제화시대의 양계업의 경쟁력제고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방안모색, 미국의 소비촉진홍보 및 자금조성 등을 시찰할 미국양계산업시찰단을 모집한다.

미국사료곡물협회가 후원하는 동시찰단은 6~8명으로 구성하고 소요비용은 250만원 정도로 전액 자부담이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캔터키, 조지아주, 워싱턴 등 5개주를 돌게되는 이번 시찰단에 참가를 원하는 분은 본회로 신청바란다.

출국은 오는 11월 초 예정이며 업계지도급인사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편집위원회 개최



△ 9월 편집위원회

'87 제 9차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박사)가 9월 11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간 침체되어온 닭고기가격의 회복을 위하여 집중 논의가 있었으며 채란계의 문제점을 현장을 토대로 사전 발견하여 기사화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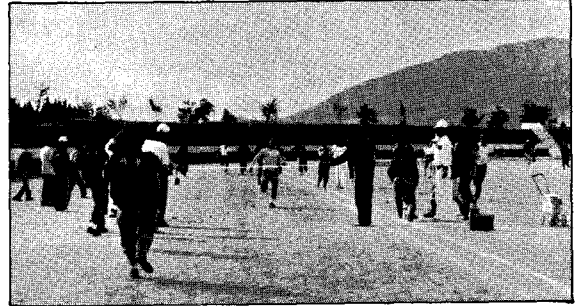
특히 닭고기 가격하락에 즈음하여 무엇보다 생산과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병아리 입추시 자체 홍보가 더 취급되었어야 했음을 감안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나타나면 이의 해결에 힘을 기울여 나가는 편집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양계장 사고사례 소식을 발표하여 양계농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

하는 한편 취재관련 기사의 양도 점차 늘리는데 노력할 것이 제시되었다.

부산경남지부 10회 체육대회 개최

- 9월24일, 김해공설운동장에서 -



△ 부산경남지부 체육대회

본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손종현)는 지난 9월24일(목) 회원, 지역 양계인과 관련업계 등 약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0회 추계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지부 분과위원회, 본회 등 12개팀으로 나누어 개최된 이날 체육대회는 씨름, 줄다리기, 여자공구르기, 여자 400m계주, 남자 800m계주 외 6개종목을 겨뤘다.

김해시 봉황동소재 김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체육대회 종합우승은 동부분회가 준우승은 고성분회가 각각 차지했다.

본 행사는 년례정기행사로 회원뿐만아니라 지역 축산인 모두가 동참하는 양계인 축제로 이번까지 10회를 거듭해 오고있다. 체육대회성적은 다음과 같다.

우 승: 동부분회	모범상: 울산·웅촌분회
준우승: 고성분회	응원상: 거제분회
장려상: 채란분과	입장상: 고성분회

동두천분회 수재의연금 전달

- 관할지역 동성농장에 30만원 -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그간 동두천분회(분회장 최영식)가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수재의연금 30만원을 관할지역 동성농장(대표 강 훈)에 전달했다.

동성농장은 산란계 중추 18,000수가 침수, 전 계군이 폐사하였다.

제3회 전국 닭고기요리 솜씨대회

- 10. 27 (화) 에서 11. 4 (수) 로 변경 -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새로운 닭고기요리를 개발· 보급하고 닭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므로써 소비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실시하는 전국 닭고기요리솜씨대회는 올해로써 3회를 맞이한다.

본회와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농림수산부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여의도 대한생명(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1987. 11.4(수) 13:00에 개최할 예정이다.

예전의 솜씨대회와는 달리 이번 행사에는 서류심사를 거친 참가자들이 행사장에서 직접 요리를 만든다. 요리한 것을 심사하는 동안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요리강습회, 닭고기·계란 영양강의, 식용유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지방 참석자중 본회지부 추천을 받은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시상내용으로는 농림수산부장관상(최우수상) 1점(300,000원), 우수상 2점(각100,000원), 장려상 10점(각50,000원)이 주어진다.

홍보협찬금 1억2천1백여만원 모금

- 금년 목표의 81% 달성 -



△ 이상운 사장



△ 최영식 분회장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 협찬금이 9월30일(수) 현재 현금 99,075,200원, 현물 및 협찬자집행 22,083,400원으로 총 121,158,600원이 접수되었다.

전양계인과 관련업체·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찬금은 계속 접수중에 있다. 올해 목표는 1억5천만원으로 9월까지 81%를 돌파했다. 관계자들의 뜻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9월중 5십만원 이상 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 동두천분회(분회장 최영식) : 1,000,000원
- 미국대두협회(한국대표 이경원) : 2,000,000원
- 이상운(신기농장) : 2,000,000원
- (주)삼양사(사장 김상웅) : 3,000,000원(계란책자)(가나다순)

닭·계란에 대한 작문 현상모집

- 1987. 9. 1 부터 9. 30까지 -

본회는 미래 소비층인 자라나는 세대에게 친근감을 주고, 소비확대를 유도키 위해 전국의 초·중생을 대상으로 닭과 계란에 관련된 작문을 모집 중에 있다.

현재 많은 작품이 접수(9.1~9.30)되고 있으며 심사는 10월 중에 할 예정이다.

시상내용으로는 농림수산부장관상(최우수상) 1점 30만원, 우수상 2점 각20만원,佳作 6점에 각10만원과 입선 20점에 각 2만원 상당의 학용품이 주어진다.

입상자 발표는 월간양계에 게재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학교조리 실습지원 실시

- 여고 3 개교, 여전 3 개대 -

본회는 지난 상반기(1학기)에 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조리실습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 하반기(2학기)에는 서울시내 3개 여고와 여자전문대학에서 실시한다. 학교조리실습 지원내용은 닭고기·계란 영양강의와, 강습회 및 학생실습 순으로써 종전의 방식과 같다.

이번 조리실습 학교명은 다음과 같다.

- 명지여고 • 한양여자전문대학
- 정신여고 • 숭의여자전문대학
- 광영여고 • 서울보건전문대학

육계생산조절 호소방송

육계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일각에서는 입추가 줄지않고 있어 육계생산조절을 호소하기 위해 9월23일 농어촌시간에 본회 임덕성 사무국장이 KBS 라디오에 출연 입식조절을 홍보했다.